

아우구스티누스와 ‘사회적 사랑(*amor socialis*)’의 사회적 영성* ** 제자윤리의 관점에서

문시영 (남서울대,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아우구스티누스와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

1. ‘제자도’로 읽어야 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적 영성
2.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적 영성: 카리타스-사회적 사랑
3. 의의와 과제: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모색

III. 나오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3.55.05>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2A01042172)

** ‘사회적 영성’이라는 표현은 다음 글들에서 인용했다. Jesuit Centre for Faith and Justice eds, *Windows on Social Spirituality* (Dublin: Ireland, 2003):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서울: 현암사, 2014): 송창현, “사회적 영성으로의 초대,” 『가톨릭평론』 1(2016), 215~222: 박명림, “사회적 영성, 내면윤리의 사회적 구상,” <복음과 상황> 2017.1.26일자. *이 글에서는 공감, 환대, 책임, 소통을 ‘사회적 영성’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의 제자윤리’로 읽어내고자 한다. 영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서, 영성에 관한 논의를 풀어내는 것은 아니다. ‘잘됨에 집착하는 신앙’을 ‘잘되는 영성’으로, ‘사회적 실천에 관심하는 신앙’을 ‘사회적 영성’으로 상정하고 한국기독교의 윤리적 성숙을 모색하려는 취지이다.

• ABSTRACT •

Amor socialis and Social Spirituality in Augustine's Ethics of Being Disciple

Professor Moon, Si-Young (Namseoul University)

What direction should Korean Christianity take in response to criticism of lacking public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empathy, and hospitality? Augustine's *De Civitate Dei*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solving this problem. According to Augustine, social spirituality is an essential task required by the ethics of being a disciple. Above all, Augustine's concept '*amor socialis*' should be expanded to include the practice of public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empathy and hospitality.

Through contemporary dialogue with Augustine, Korean Christianity should strive for social spirituality based on discipleship. Korean Christianity, which is actively interested in discipleship, disciple ethics, and disciple training, should not only focus on internal maturity and training but also cultivate publicness and otherness. Korean Christianity must mature to the point of realizing the ethics of being a disciple in civil society by pursuing social spirituality.

Key words: Discipleship, Being Disciple, *amor socialis*, Social Spirituality, Public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Empathy, Hospitality

I. 들어가는 말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를 ‘무세계성(worldlessness)’에 빠지도록 부추긴 장본인일까?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De civitate Dei*)을 통하여 세상을 ‘천막살이’로 격하시켜, 공적 책임 등 ‘세계사랑(amor mundi)’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는 아렌트(Hannah Arendt)의 비판은¹⁾ 기독교에 자성을 위한 문제의식을 던져준다. 하지만, 아우구스티누스를 무세계성을 조장한 인물로 몰아세우는 것에 동의할 수 없는 요소들이 더 많다. 세상에 집착하는 ‘쿠피디타스(cupiditas)-사사로운 사랑(amor privatus)’의 극복을 역설하고 ‘카리타스(caritas)-사회적 사랑(amor socialis)’의 실천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아이러니한 것은 한국기독교에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 탓이라고 했던 ‘천막살이’가 아닌 ‘강남스타일 교회’를²⁾ 꿈꾸며 ‘한강-뷰 고급 아파트’에 살고자 하는 ‘잘되는 영성’에 휘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상의 도성(civitas terrena)’에 대한 집착을 경계하고 사회적 사랑을 강조한 아우구스티누스를 바르게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가 요청한 제자됨의 윤리를 따르지 않고 있는 셈이다. 그렇게나 제자훈련이 넘쳐나면서도 말이다. 사실, 한국기독교가 시민사회로부터 공적 책임과 소통, 공감과 환대의 ‘사회적 영성(social spirituality)’을 결여했다고 지탄을 받는 이면에는 사회적 영성에 대한 무관심이 깔려있다. 이것은 “압축적 교회성장 과정에서 변영신학과 잘되는 영성이 한국기독교의 신앙의 ‘사사화

1)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과 여러 논의를 참고할 수 있지만, 아렌트 자신의 관점을 담고 있는 다음 책을 참고하도록 추천하고 싶다. Hannah Arendt, edited by Joanna Vecchiarelli Scott, Judith Chelius Stark, *Love and Saint Augustine*, 서유경 역,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서울: 펠로소픽, 2022)

2) 이 표현은 다음 책에서 인용했다. 권수경, 『변영복음의 속임수』(서울: SFC, 2019), 402.

(privatization)’를 초래했고 공적 책임을 비롯한 소통, 공감, 그리고 환대의 실천을 위한 사회적 영성을 외면하고 있다”는 진단과도 일맥상통한다.³⁾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신국론』을 중심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적 영성을 읽어내고자 한다. 특히, ‘쿠피디타스’와 ‘카리타스’의 사회적 지평이라고 할 수 있는 ‘사사로운 사랑’과 ‘사회적 사랑’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잘되는 영성에 휩쓸려 신앙의 사사화를 초래하여 사회적 영성에 무관심하게 된 현실을 자성하고 그 해법을 모색하려는 취지이다. 하지만, 사회적 영성에 관한 논변에 ‘단순 가담’하려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으로,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social spirituality based on discipleship)’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사회적 영성에 관심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영성이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제자됨(being disciple)’의 윤리에 근거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취지이다.

II. 아우구스티누스와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

1. ‘제자도’로 읽어야 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적 영성

『신국론』은 최초의 역사철학으로 간주되는 것은 물론이고 현대정치학의 모티브를 담은 원천으로 간주되어 다양한 선행연구를 낳고있다. 한국의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기간을 2000년대 이후로만 한정하더라도, 선행연구는 상당하다.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를 참고하면서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정의를 죄인을 의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해석한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⁴⁾ 사회정의에 관한 니버(Reinhold Niebuhr)

3) 문시영, “잘되는 영성에서 사회적 영성으로: 공공신학적 조망,” 『선교와 신학』 57(2022), 37~66.

의 관점을 따라 아우구스티누스를 연구한 경우도 있다.⁵⁾ 『신국론』에서의 의도한 것은 국가의 제도가 아닌 기독교 신앙 위에서 재건하려는 것이었다는 주장 또한 관심을 끈다.⁶⁾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심은 현실정치와 불행을 극복하려는 것이라기보다 불행을 통해 하나님의 도성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⁷⁾ 또한, 『신국론』 해석을 통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갈등 관계가 아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임을 주장한 것도 의미가 있어 보인다.⁸⁾

무엇보다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적 사랑(amor socialis)’에 관심한 연구는 이 글의 주된 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사회적 영성과 관련지를 단초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⁹⁾ 다만, 공적 책임과 소통, 공감과 환대에 관한 현대적 대화로 확장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예를 들어, “지상의 도성에서의 삶 자체가 ‘낯선 이(stranger)’의 행로이기에 서로 환대하며 살아야 한다”는¹⁰⁾ 아우구스티누스의 교훈은 환대의 현대적 재론

4) 김진혁, “은혜와 정의: 특이론 관점에서 본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신학,” 『조직신학논총』 56(2019), 53~99.

5) 김영진,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의와 그 현대적 함의 연구: 기독교적 관점에서,” 『기독교철학』 30(2020), 37~61

6) 남성현,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나타난 세속국가 허물기와 국가치료의 비전,”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47(2018), 1~38.

7) 양명수,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정치의 의미와 한계: 『신국론』 19권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62(2009), 133~157

8) 우병훈,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나타난 사랑의 갈등,” 『한국개혁신학』 70(2021), 168~217.

9) 이와 관련하여, 성염의 글들이 중요하다. 학술저널 문헌들을 찾기 어려워 검색을 통해 참고했다.

‘하느님 나라의 초석: 사회적 사랑: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의 기초 사상으로서,’ https://home.catholic.or.kr/pdsm/bbs_view.asp?num=4067(2023.1.28. 접속): ‘두 개의 사랑 두 개의 정치: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서 펼쳐진 역사의 새로운 지평,’ http://donbosco.pe.kr/xe1/?document_srl=587016&mid=augustinus(2023.1.28. 접속) ‘열린연단, 성염 서강대 명예교수의 『아우구스티누스 〈고백록〉 〈신국론〉’ <https://uni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0>(2023.1.18. 접속)

10) Amy G. Oden, ed, *And you welcomed m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과 연관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신국론』이 로마사회를 향하여 변증을 시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적 소통에 대한 논의도 가능해 보인다. 적극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가 신앙의 공공성을 위한 공적 책임과 소통, 그리고 타자윤리를 위한 공감과 환대의 사회적 영성에 관심을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단초들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회적 사랑의 사회적 영성을 적극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를 무세계성을 부추긴 장본인으로 몰아세운 것에 대한 의미있는 반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 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적 사랑에 나타난 사회적 영성은 제자도 내지는 제자됨의 윤리를 통해 접근할 때 적극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사실, 『신국론』에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심이 녹아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심을 현실정치에 훈수두기 혹은 정치학의 기독교적 담론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 『신국론』을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이론이라고 말하는 것은 후대의 평가 중 하나이다.¹¹⁾ 후대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자신의 맥락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주교로 봉직했던 370년~430년 어간에 아우구스티누스와 동료 주교들은 지식인, 입법가, 홍보대사, 판사 등의 직능을 수행하기도 했으나,¹²⁾ 본질적으로는 설교자였고 목회자였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전문적인 정치이론가로 혹은 『신국론』을 사회 및 정치이론서로 대하면 안 되는 이유이다. 오히려, 신학자이자 설교자이며 목회자로서의 아우구스티누스의 맥락에 유의해야 한다. 복음에 충실한 제자됨을 설교하며 목회하는 것이야말로 아우구스티누스의 본래적 맥락이며 근간이다.

45.

11) Alan Ryan, *On Augustine: The Two Cities* (New York, NY: Liveright Publishing, 2016), 61.12) Kevin Uhalde, *Expectations of Justice in the Age of Augustine*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3.

이러한 뜻에서, 『신국론』은 정치이론서라기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사이의 삶의 차이에 관한 책이다.¹³⁾ 윌리엄스(Rowan Williams)는 『신국론』이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 교회와 세상 사이의 대립이 아닌 정치적 미덕과 정치적 악덕 사이의 대립이 초점”이라고 말한다.¹⁴⁾ 또한 홀링워스(Miles Hollingworth)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했으며 새로운 시민권의 문제 즉 어떤 사랑의 존재인가 하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¹⁵⁾ 말한다. 그리고 밀뱅크(John Milbank)에 따르면, 『신국론』에서 보여준 통찰 즉 폭력의 도성과는 연관되지 않는 ‘다른 도성(altera civitas)’에 주목해야 한다.¹⁶⁾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re-narrating)해야 하고 세속 이성이 지어낸 거짓 이야기를 극복(out-narrating)해야 한다는 주장이다.¹⁷⁾

특히,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신국론』 읽기는 의의가 크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신국론』에 몇 가지 강조점이 있다. “①그리스도인은 덕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②덕의 근간은 카리타스(caritas)이어야 한다. ③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④사랑의 질서가 필요하며 사회의 질서도 여기에서 연유한다. 그리고 ⑤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권력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⑥결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교회만이 진정한 공동체이다.”¹⁸⁾ ①, ②, ③, ④는 『신국론』에 나타난 덕으로서의 카

13) John Rist, “On the nature and worth of Christian philosophy: evidence from the City of God,” in James Wetzel, ed., *Augustine's City of God: A Critical Guid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214.

14) Rowan Williams, *On Augustine*, 김지호 역, 『다시 읽는 아우구스티누스』(고양: 도서출판 100, 2021), 207~246.

15) Miles Hollingworth, *The Pilgrim City: St. Augustine of Hippo and his Innovation in Political Thought* (New York, NY: T&T Clark, 2010), 182: 190.

16) John Milbank, *Theology and Social Theory*, 서종원, 임형권 역, 『신학과 사회이론』(서울: 새물결플러스, 2019), 732~733.

17) 임형권, “유목 공동체로서의 교회: 존 밀뱅크의 아우구스티누스적 교회론,” 『한국기독교신학논총』100(2016), 41~64.

리타스에 관심하게 한다. ⑤와 ⑥은 지상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교회가 카리타스의 덕을 함양하는 공동체가어야 함을 말해준다.

하우어워스의 해석이 지닌 장점은 그리스도인의 덕으로서의 카리타스를 제자됨의 관점에서 재조명할 단초를 준다는 점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이 지상의 도성을 지내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문제 즉 제자도를 펼쳐낸 두 도성에 대한 이해방식은 기독교윤리의 핵심 이슈이다.”¹⁹⁾ 참고로, 『신국론』에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순례자이어야 함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곧 무세계성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는 순례자이자 제자이기를 권한다. ‘순례길에 오른 제자’로서,²⁰⁾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지상의 도성을 살아가는 동안 ‘제자로서 순례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하우어워스가 ‘예수 내러티브(Jesus narrative)’에 따라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의 함양을 추구하는 것이 제자됨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것이 중요하다. 제자됨은 교회가 관심해야 할 최우선의 과제이며 교회는 그리스도인다운 성품을 함양하는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자됨이 ‘교회됨(being church)’으로 이어지는 셈이다.²¹⁾ 물론, 아우구스티누스의 ‘정당전쟁론’을 비판하기는 했지만,²²⁾ 하우어워스가 아우구스티누스

18) Stanley Hauerwas and Samuel Wells, ed., *The Blackwell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Malden, MA: Blackwell Publishing Ltd., 2006), 44.

19) Stanley Hauerwas, “How Christian Ethics Came to Be,” in John Berkman and Michael Cartwright, eds., *The Hauerwas Reade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1), 39.

20) Michael Marshall, *Flame in the Mind*, 정다운 역, 『순례를 떠나다』(서울: 비아, 2018), 173: 191: 232.

21) 하우어워스의 기독교 덕윤리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문시영, 『교회됨의 윤리: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 연구』(성남: 북코리아, 2013)

22) 이 부분은 다음 글을 참고하라. Stanley Hauerwas, “Should War Be Eliminated? A Thought Experiment,” in John Berkman and Michael Cartwright, eds., *The*

에 주목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After Christendom?*’에서, 하우어워스는 아우구스티누스를 콘스탄틴적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로 간주하는 경향과 달리, 아우구스티누스야말로 콘스탄틴적 교회관에 대항했다고 해석한다.²³⁾ 이것은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게 된 정황을 반영한 것으로서,²⁴⁾ 잘되는 영성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우려를 볼 수 있다.

교회 안에도 위증자, 사기꾼, 악행을 일삼는 자, 점집을 찾는 자, 간음하는 자, 술고래, 고리대금업자, 노예상인, 그리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무리가 너무 많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이다.²⁵⁾ ... 온갖 민족들이 교회를 채웠고, 깨끗하든 깨끗하지 못하든 사람들이 교회의 단일한 조직 속에 들어와 있다. 확실한 종말이 올 때까지는 쉬여 있을 것이다.²⁶⁾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콘스탄틴 결탁(Constantinian accommodation)’의 시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설득력을 얻는다.²⁷⁾ 콘스탄티누스와 테오도시우스가 국가와 교회의 형식상 일치로서의 ‘기독교제국(Christendom)’을 추구한 것에는 기독교를 로마와 결탁시켜 정체성을 상실시킬 우려를 동반한다. 하우어워스가 “기독교윤리는 신실한 제자가 되는 법을 배우는 것이어야 한다”고²⁸⁾ 말하는 이유이다. 아우

Hauerwas Reader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2001), 392~425.

23)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1), 40.

24) 콘스탄틴적 정황을 비롯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시대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음 책을 참고하라. Peter Brown, *Augustine of Hippo*, 정기문 역, 『아우구스티누스』(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25) *In Epistolam Ioannis ad Parthos Tractatus*, III,9.

26) *De civitate Dei*, XV.27.5.

27) 사전적 의미로는 ‘동화’이지만, 문제성을 부각시킨다는 뜻에서 ‘결탁’이라고 옮겨보았다.

28)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홍종락

구스티누스를 ‘그리스도인다운 성품형성(Christian formation)’을 독려한 인물로 해석하는 이유기도 하다.²⁹⁾ 이것은 순교시대 이후에 스며든 잘되는 영성에 대한 경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상실하는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한다.³⁰⁾ 그것은 “이방의 거류민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공동의 삶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³¹⁾ 이렇게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적 영성은 제자됨의 윤리로 읽을 때 비로소 그 적극적 의의를 확인할 수 있겠다.

2.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적 영성: 카리타스-사회적 사랑

1) ‘쿠피디타스-사사로운 사랑’에서 ‘카리타스-사회적 사랑’으로

제자됨의 윤리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한 핵심은 카리타스이다.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들이 지상의 도성을 지내는 동안 제자됨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핵심은 카리타스가 있다. 카리타스는 쿠피디타스와 결탁된 잘되는 영성의 유혹을 이겨내고 제자됨을 구현하기 위한 윤리라고 할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은 시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은 사용(uti)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유(frui)하는 사랑의 질서를 따라야 한다. 하지만 인간은 교만과 탐욕으로 그 질서를 왜곡하여

역, 『평화의 나라』(서울: 비아토르, 2021), 92.

29) Jonathan D. Ryan, *Love does not seek its own: Augustine, Economic Division, and the Foramtion of a Common Life* (New York, NY: T&T Clark, 2021), 4.

30) Vigen Guroian, *Ethics after Christendom*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4), 1.

31) James K. A. Smith, *Awaiting the King*, 박세혁 역, 『왕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공공신학의 재형성』(서울: IVP, 2019), 20: 111.

쿠피디타스로 전락한 상태를 극복하고 ‘사랑의 질서(ordo amoris)’에 따른 카리타스로 나아가야 한다.³²⁾

이 부분에서, 참고할 것이 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에는 ‘개인적 측면(individual aspect),’ ‘제도적 측면(institutional aspect),’ 그리고 ‘사회적 측면(social aspect)’이 공존한다.³³⁾ 응용하여 읽으면, 이렇게 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내적 성찰을 통해 제자됨을 추구하되 사사화되지 말아야 한다. ‘교인’으로서 제자공동체를 지향하되 변영의 복음과 잘되는 영성에 휘둘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으로서, 사회적 영성으로 나아가야 한다.³⁴⁾ 이와 관련하여, 제자됨을 위한 논의에 제자직과 시민직 모두를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참고할 필요도 있다.³⁵⁾

이러한 뜻에서,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는 사회적 지평으로 확장된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두 사랑이 두 도성을 이루었다. 하나님을 멸시하면서까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지상의 도성을 만들었고, 자신을 멸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늘의 도성을 만들었다.”³⁶⁾ 지상의 도성이 로마와, 하나님의 도성이 교회와 동일시되는 것은 아니다. 『신국론』은 “두 종류의 삶을 말해주는 내적 역사(inner history)”이다.³⁷⁾ 이 점에서, 카리타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려는 제자

32) 이에 관해서는 다음 책을 참고하라. 문시영, 『안으로 들어가라: 아우구스티누스의 내적 성찰과 사회윤리』(성남: 북코리아, 2020).

33) Mary T. Clark, “Spirituality,” in Allan Fitzgerald,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 1999), 813~815.

34) 이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영성: 탐욕이 미덕인 시대에 다시 읽기,” 『신학과 교회』25(2021), 87~114.

35) John A. Colman, “두 가지 교육: 제자직과 시민직,” Mary J. Boys, ed., *Citizenship and Discipleship*, 김도일 역, 『제자직과 시민직을 위한 교육』(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69.

36) *De civitate Dei.*, XIV.2.28.

37) 선한용,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나타난 두 도성에 대한 문제 연구,” 『신학과 세계』12(1986), 169~186.

됨의 원동력이다. 나아가, 카리타스와 쿠피디타스는 그 사회적 지평에서 두 종류의 사랑으로 각각 연결된다.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 ... 하나는 사회적 사랑(amor socialis)이요 다른 하나는 사사로운 사랑(amor privatus)이다. 하나는 높은 도성에 속한 탓에 공동선을 생각하고, 다른 하나는 오만하여 공동선까지도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 이것이 두 도성을 구별하게 한다. 하나는 정의로운 이들의 도성이고 다른 하나는 사악한 자들의 도성이다. ... 하나님의 섭리로 두 도성이 인류 안에 마련되었다. ... 두 도성은 세상 속에 섞여 있어 역사 속에서 계속될 것이지만, 마지막 심판이 그것을 가를 것이다.³⁸⁾

말하자면, ‘카리타스-하나님의 도성-사회적 사랑’이 ‘쿠피디타스-지상의 도성-사사로운 사랑’에 대립하는 구도이다. 사회적 사랑은 카리타스를 사회적 지평에서 구체화한 것이며 사사로운 사랑은 쿠피디타스의 사회적 측면이다. 사사로운 사랑은 정치가의 개인이익에 집착하며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낳는다. 사사로운 사랑과 달리, 사회적 사랑은 공동선(共同善)을 추구하며 화해와 정의를 도모하는 사랑으로서,³⁹⁾ 하나님을 향유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향유하는 질서있고 평화로운 사회를 꿈꾸게 한다.⁴⁰⁾

이것은 카리타스에 대한 바른 인식이야말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적

38) *De Genesi ad Litteram*, X I, 15, 20.

39) 사회적 사랑에 관하여, 성염의 설명을 참고하라.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사사로운 사랑(amor privatus)으로 멸망하고 사회적 사랑(amor socialis)으로 구원받는다’고 정립했는데, 베네딕토 16세는 이 ‘사회적 사랑’이란 다른 아닌 ‘정치(政治)’라고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성염, “21세기는 평신도 시대, 어떤 복음화가 필요할까,” <신학전망> 발간 50주년기념학술발표회 기사. <가톨릭프레스> 2018. 11. 18일자. *<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5440>(2023. 1. 28. 접속)

40) *De civitate Dei*, XIX, 13, 1.

영성의 근간임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순례하는 제자로서, 잘되는 영성으로 유혹하는 쿠피디타스를 극복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동시에, 쿠피디타스에 물든 잘되는 영성에 집착하는 사사로운 사랑을 극복해야 한다. 신앙을 사사화시키지 않고 교회공동체에서, 그리고 로마의 시민사회에서 사회적 사랑을 실천하는 사회적 영성에 적극적이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사회적 영성을 읽어내기 위하여 참고해야 할 사항이 있다. 영성 개념에 관한 찬반 논변으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사회적 영성에 다양한 창(windows)이 열려있다는 점이다.⁴¹⁾ 이것은 사회적 영성이 실천적 지평에서 다루어져야 하며 그 어젠더를 특정한 주제에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 글에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경우처럼 박해없는 시대에 기독교가 잘되는 영성에 휘둘렸던 현상을 극복할 실천적 대안으로 사회적 영성을 다룬다.⁴²⁾ 그리고 카리타스-사회적 사랑의 맥락에 공적 책임과 소통, 공감과 환대를 대입하고자 한다. 네 가지에 한정하여 사회적 영성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자됨의 관점에서 함양해야 할 덕목들의 대표적인 사례로 읽어내려는 시도이다.⁴³⁾

요점은 이렇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순례하는 제자가 되어야 하며 교회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

41) 이 표현은 다음 책이 제목을 응용하였다. Jesuit Centre for Faith and Justice eds, *Windows on Social Spirituality* (Dublin: Ireland, 2003).

42) 사회적 영성과 관련하여 시대별로 다양한 어젠더가 제시되어 왔다. 책임, 평화, 분배정의와 공정의 문제, 그리고 안전사회를 위한 관심 및 기후위기의 문제 등 여러 어젠더가 병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어젠더를 다루기 위해 책임윤리, 평화윤리, 경제윤리, 생명의료윤리, 환경윤리 등 다양한 학문적 시도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공적 책임과 소통, 공감과 환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43) 공적 책임과 소통, 공감과 환대를 덕목들로 다루는 관점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라. 문시영, “덕 윤리로 읽는 사회적 영성과 성품화를 위한 과제,” 『신학과 사회』 36(2022), 209~239.

여 순례하는 제자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통하여 카리타스의 덕을 함양하고 훈련해야 한다. 그 핵심에 잘되는 영성의 극복과 사회적 영성의 구현이 자리한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됨을 통하여, 그리고 교회는 교회됨을 통하여 쿠피디타스에 물든 잘되는 영성에 휘둘리는 ‘쿠피디타스-사사로운 사랑’을 극복하고 ‘카리타스-사회적 사랑’을 따라 사회적 영성을 구현할 책무를 지닌다.

2) 카리타스-사회적 사랑: 책임, 소통, 공감, 환대의 사회적 영성

(1) ‘공적 책임’ 으로서의 사회적 사랑

아우구스티누스는 공적 책임에 적극적이다. 공공신학(public theology)에서 경계하는 사사화(私事化, privatization)의 극복과 긴밀하게 연관된다.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독교의 공적 영역에 대한 거부를 이끈 장본인으로 지목하면서 공적 참여를 ‘사적인’ 사랑의 윤리로 대체했다고 비판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잘못 해석한 결과이다.⁴⁴⁾ 카리타스는 사스러운 사랑을 극복하는 사회적 사랑으로서, 공동선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이다.⁴⁵⁾ 카리타스는 공적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하여 문화·사회적 맥락에서 사회참여적 영성을 구현하도록 이끌어간다.⁴⁶⁾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교회는 사회에 대항하여 자기방어에 급급한 공동체가 아니라 제국을 주도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⁴⁷⁾

44) Rowan Williams, 『다시 읽는 아우구스티누스』(고양: 도서출판 100, 2021), 238.

45) Agostino Trapè, *Agostino: l'uomo, il pastore, il mistico*, 변종찬 역, 『아우구스티누스: 인간, 목자, 신비가』(의왕: 도서출판 벽난로, 2010), 357.

46) 김동영, “어거스틴의 종교적 회심과 영성 이해,” 한국기독교영성학회 편,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여정』, 261~293.

47) Peter Brown, *Augustine of Hippo*, 『아우구스티누스』, 304.

말하자면, 『신국론』은 공적 관심의 적극적 표현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전적 국가관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았으며 변증법적으로 활용한다. 좋은 국가의 비전은 정의와 조화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것이 시민들에게 완전한 행복과 완성을 가져다준다는 플라톤의 비전은 지상의 도성에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성에서라야 가능하다. 고전적 국가관이 전환되어 하나님의 도성에 적용된 셈이다.⁴⁸⁾ 키케로의 관점을 응용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선언한다. 지상의 도성에서는 성취될 수 없으며 오직 하늘의 예루살렘에서만 성취될 수 있다.⁴⁹⁾ 지상의 도성은 상대적이며 한계를 지닌 도성이다. 이것은 지상의 도성에 대한 혐오가 아니라, 영원한 도성을 기준으로 지상의 도성을 평가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다.

이처럼, 『신국론』에 나타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점은 저 세상적인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세상에 대한 관여(engagement)’로서의 공적 삶에 관한 신학(theology of public life)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그것은 공적 영역에 대한 중립적 관심이라기보다 기독교신앙의 관점에서 관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적 영역과 그리스도인의 삶 모두를 증진하려는 접근법이다. 이것은 『신국론』은 구체적인 정책에 관심하기보다 공적 참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임을 보여준다.⁵¹⁾

더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시간의 영역에 대한 절대화를 거부하고 영원을 기준으로 상대화시켰다. 『신국론』은 지상의 도성에서는 찾을 수 없는 정의와 평화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더 나은 길을 말하는 방식을 취한다.⁵²⁾ 다만, 지상의 도성에서의 평화는 순례길을 가는 동안 평화

48) Herbert A. Deane, *The Political and Social Ideas of St. Augustine* (Tacoma, WA: Anglico Press, 2013), 11.

49) *De civitate Dei*, II, 21.

50) Charles Mathews, *A Theology of Public Lif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1.

51) James Smith, 『왕을 기다리며』, 349~373.

의 궁극적 성취에 도달하기 전까지 유용하고도 필수적이기까지 한 매개체로 ‘사용’한다.⁵³⁾ 특히, 로마가 지배욕(libido dominandi)에 이끌린 공동체인 것을 직시하면서 국가란 무질서로 흐르지 않도록 인간의 욕망들을 다루기 위한 조직체임을 놓치지 않았다.⁵⁴⁾ 지상의 도성에 완전한 것은 아니어도 나름의 역할이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체류도시로서의 지상의 도성을 배척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장점들은 향유하고 단점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보았다.⁵⁵⁾ 폭동에 대한 처결에서의 공격 의견을 제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 그 사례가 되었다.⁵⁶⁾ 또한 도나투스 이단에 대한 처리를 위해 공권력을 요청한 과정에서 볼 수 있듯이, 지상의 도성에서 국가의 기능은 사악한 자들을 억제하고 처벌하는 것으로 재규정된다. 다만, 그들이 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선이었다.⁵⁷⁾

(2) ‘소통’ 으로서의 사회적 사랑

공공성의 또 다른 덕목인 ‘소통’에 대해서도 아우구스티누스는 적극적이다. 이것은 『신국론』이 변증 혹은 호교적 특성을 지닌다는 사실로부터

52) Matthew Levering, *The Theology of Augustine: An Introductory Guide to His Most Important Work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3), 111.

53) Philip Sheldrake, *The Spiritual City: Theology, Spirituality and the Urban*, 김경은 역, 『도시의 영성』(서울: IVP, 2018), 48.

54) Alan Ryan, *On Augustine: The Two Cities* (New York, NY: Liveright Publishing Corporation, 2016), 92.

55) Fritz M. Heichelheim, *A History of Roman People*, 김덕수 역, 『하이켈하임 로마사』(서울: 현대지성, 2022), 998.

56) 채승희, “5세기초 북아프리카 교회의 대 정치적 성격: 칼라마 시의 폭동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반응을 중심으로,” 『장신논단』44-4(2012), 139~164.

57) Alan Ryan, *On Augustine: The Two Cities*, 220.

입증된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옹호’를 말한 것은 단순히 저술의 목적을 서술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영성의 중요한 흔적이다.⁵⁸⁾ 『신국론』 자체가 기독교의 관점을 시민들을 향하여 던져주는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진리에 기초한 변증이자 로마의 시민사회와의 공적 소통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비가 안 온다. 이것도 기독교 탓”이라는⁵⁹⁾ 로마인들의 억지스러움에 대해서까지 소통한다. 이 부분에서, 참고할 것이 있다. 기번(Edward Gibbon)으로 대변되는 로마의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관점에 관해서이다. 기번이 기독교가 병역에 나갈 사람들을 수도원에 데려가게 한 것을 로마패망 원인의 하나로 지적한 것은 문제가 있다.⁶⁰⁾ 로마의 멸망에는 이러한 부수적인 원인들과 함께 부패한 정치문화, 귀족주의적 가치관의 문제들이 작동했기 때문이다.⁶¹⁾ 기번의 편향과 달리,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실참여를 계명위반이라고 하지 않았고 적극적 참여를 권장했다.⁶²⁾ 예를 들어, ‘의로운 전쟁론’을 병역을 시민의 의무로 옹호한 것이라고 읽을 여지도 있어 보인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시민적 소통에서 진리와 사실에 기초한 설득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았다. 로마가 침탈당할 때 교회에 피신하도록 받아들이고 그들을 보호했던 사례는 중요하다. 생색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 의미에서 변증과 공적 소통의 시도였다. 나아가, 대안으로 카리타스에 관심할 것과 함께 참된 종교(vera religione)를

58) *De civitate Dei* I. pro.

59) *De civitate Dei* II.1.3

60) 정기문, “로마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는가: 로마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29(2008), 296~324.

61) Fritz M. Heichelheim, 『하이켈하임 로마사』, 999~1009.

62) Dean Hammer, *Roman Political Thought: From Cicero to Augustin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225.

권한다. 그 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속적으로 로마의 관료들, 그리고 동료 성직자 등의 요청을 따라 지상의 도성의 문제들에 관하여 서신교환을 비롯한 여러 방식으로 교류한 것 역시⁶³⁾ 공적 소통에 관한 중요한 사례이다.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현실로부터의 도피를 말한 것도 아니고 물러남을 권하지도 않았다.⁶⁴⁾ 적극적으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은 “기독교의 두 도성, 두 정의, 두 정치에 관한 근본적인 틀을 제시했다.”⁶⁵⁾ 아우구스티누스를 따라 현대사회에서 기독교의 공적 책임을 재론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관점 즉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서 ‘교회와 구조적 불의’(church versus structural injustice)의 관점으로 바꾸어 공적 영역을 교회가 관심해야 할 영역으로 삼아 정의와 평화를 위한 사역의 장이 되게 해야 한다.”⁶⁶⁾ 이러한 뜻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을 따라 공적 책임과 소통에 관심하는 사회적 영성이 오늘의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남겨진 과제라고 하겠다.

(3) ‘공감’ 으로서의 사회적 사랑

사회적 영성의 또 다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공감과 환대에 관한 성찰은 『신국론』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아우구스티누스의 『설교집』을 추가로 인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 『신국론』에서 볼 수

63) Alan Ryan, *On Augustine: The Two Cities*, 21.

64) Dean Hammer, *Roman Political Thought: From Cicero to Augustine*, 430.

65) Ilsep Ahn, *The Church in The Public: A politics of engagement for a cruel and Indifferent age* (Fortress Press: Minneapolis, MN: 2022), 13.

66) 같은 책, 194. 안일섭의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교회와 국가’의 전통적 구도에서 국가의 한계와 불완전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도성에 서려야 완성될 가치들을 말하고 있으며, 진정한 국가와 참된 행복을 하나님의 도성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있는 현대적 공감과 환대에 대한 원칙적이고도 방향성을 제시하는 언급들을 『설교집』에서 구체화하여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공감과 환대가 현대인문학이 주목하는 어젠더라는 점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현대적 재조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적 재론에 접점이 될 수 있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문장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선행은 ‘misericordia’와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⁶⁷⁾ 나그네를 맞이할 때에는 그들의 고통을 아파하십시오.⁶⁸⁾ 고난받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약한 자를 품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나그네들, 궁핍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밀려들어 올 때는 풍성하게 환대와 선행을 베푸십시오.⁶⁹⁾

이 문장에 공감과 환대에 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 전체가 담겨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대적 재조명 내지는 대화를 위한 단초로서는 충분해 보인다. 다만, 현대적 어젠더로서의 ‘공감(empathy)’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심은 응용적 해석이 필요해 보인다. 공감능력의 문제를 비롯한 공감의 현대적 담론과 연관 짓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어, 신약에서 바울이 말하는 공감은 ‘compassion’에 가까운 것으로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가치”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⁷⁰⁾ 공감에 대한 현대인문학

67) 자비, 동정심, 불쌍히 여김 등으로 옮길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현대적 대화를 위하여 ‘공감’의 뜻에 대입하고자 한다.

68) 이 설교문장은 최원오, 『교부들의 사회교리』(왜관: 분도출판사, 2020), 176에서 재인용했다.

69) 이 설교문장은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Wm Eerdmans Publishing, 1999), 171에서 재인용했다.

70) 신익상, “공감의 영성: 바울의 영성과 신경윤리와의 만남,” 『신학논단』83(2016), 193~224.

의 논의와 공유되는 부분 및 차별성을 지닌 부분이 병행한다.

특징이 있다면, 아우구스티누스의 공감에 대한 논의가 스토아윤리에 대한 논박과 연관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어스(Sarah Byers)가 누스바움(Martha Nussbaum)의 공감적 태도(emphatic attitude)를 응용하여 아우구스티누스의 ‘compassion’에 주목한 것은 흥미롭다.⁷¹⁾ ‘compassion’(연민)을 윤리적 감정으로 상정한 것과 관련하여 긍정적 공감 이 되기 위한 조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지만,⁷²⁾ 공감의 문제가 현대인문학에서만 관심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공감에 관한 논의에서, 『신국론』IX권 5장은 중요하다. 아우구스티누스는 ‘compassion’으로 번역되는 ‘misericordia’에 대해 고찰하면서, 스토아학과와 차별화를 시도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스토아학파가 ‘misericordia’를 악덕이라고 말한 것에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세네카(Lucius Annaeus Seneca)는 ‘misericordia’를 거부하고 ‘clementia’라는 표현을 쓰면서 ‘관용’의 덕을 제시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misericordia’를 ‘공감’의 뜻으로 읽는다. 비참(miseria)과 마음(cordia)의 합성어라는 점에 힌트가 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스토아학파가 ‘misericordia’를 타인의 아픔에서 느끼는 고통스러움으로 간주하여 영혼의 악덕이라고 몰아세운 것은 문제가 있다. 타인의 아픔이 자신에게 전가되지 못하게 하라는 것과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면 타인에게서 느끼는 고통까지도 감내할 강인함을 가져야 하며 그 강인함은 타자에 대한 온화함으로 나타나야 한다.⁷³⁾

71) Sarah Byers, “The psychology of compassion: Stoicism in City of God 9.5,” in James Wetzel, ed. *Augustine's City of God*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130~148.

72) 김분선, “연민(compassion)은 윤리적 고려의 대상인가?: 공감, 연민, 과잉 공감의 문제화,” 『현대유럽철학연구』 64(2022), 287~318.

73) Sarah Byers, “The psychology of compassion,” 148.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공감(compassion)이 카리타스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이웃사랑의 계명이라는 점에서 ‘compassion’으로서의 공감을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공감’(compassion in Christ)의 중요성을 보여준 것으로 읽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는 타인을 고려하는 감정(other-regarding emotions)이 있었으며 그 극치가 타인으로서의 인간구원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⁷⁴⁾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공감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관심이 스토아철학의 한계를 넘어선 기독교적 가치를 보여준다는 점이다.⁷⁵⁾

덧붙여, 아우구스티누스가 『신국론』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다루는 부분에 ‘misericors’를 사용한 것은 중요한 참고사항이다. “다른 이의 비참 앞에서 나만 행복해 하고, 괴로워 울부짖는 사람 앞에서 아무렇지 않다면 인간다움을 상실한 것과 다르지 않다.”⁷⁶⁾ 이것 역시 스토아학파에 대한 논박 중 하나이지만, ‘compassion’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준다. 인간존엄, 가난한 이들이 권리, 재화의 보편적 목적과 분배정의, 나눔과 환대의 책무, 연대와 공동선, 자비와 자선에 대한 관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⁷⁷⁾

아우구스티누스가 보기에, 공동체는 겸손과 용서와 공감(compassion)을 불어넣어 주는 카리타스의 사랑이 있어야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것은 철학도 정치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강조하고 자신의 로마적 과거(Roman past)와 결별한

74) 같은 글, 147.

75) 아우구스티누스와 스토아학파의 관계를 변증법적인 것으로 다루는 경우도 있다. 코크란(Elizabeth A. Cochran)은 프로테스탄트 덕윤리가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보다는 스토아학파를 연원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스토아학파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며 다양한 교류와 응용을 시도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Elizabeth A. Cochran, *Protestant Virtue and Stoic Ethics* (New York, NY: T&T Clark, 2018), 1~46.

76) *De civitate Dei*, XIX.7

77) 최원호, 『교부들의 사회교리』, 17.

다.⁷⁸⁾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인으로서의 자화상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성을 향한 순례길을 관심한 이유이다. 순례길에 오른 제자로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욕망의 변혁을 추구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제국의 번영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지배욕에 사로잡힌 쿠피디타스를 극복해야 하며, 지배욕을 대신하여 공감을 실천하는 사회적 사랑을 구현해야 한다는 뜻이다.

(4) '환대' 로서의 사회적 사랑

환대(hospitalitas, hospitium)에 관해서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우정(amicitia) 개념과 연관 지을 여지를 지닌다. 우정에 관하여 아우구스티누스는 키케로의 관점을 수용하면서도 기독교적 특성을 우정 개념을 제시한다. 우정을 덕이라고 보았던 키케로와 달리, 아우구스티누스는 우정을 초자연적 지평에서 이해하여 우정은 그 자체로 목적이라기보다 카리타스 안에서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카리타스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맥락에서 우정을 말해야 한다고 보았다.⁷⁹⁾ 유사한 맥락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우정 개념을 응용하여 교회가 영적 우정에 바탕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도 참고할 수 있다.⁸⁰⁾

이렇게 우정에 대한 관심을 응용하여 환대의 문제를 풀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오히려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환대의 실천은 '나그네를 환대하는 나그네'라는 복음적 실천에 집약적으로 담겨있다. 『신국론』은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순례하는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나그

78) Dean Hammer, *Roman Political Thought: From Cicero to Augustine*, 386.

79) 변종찬, “아우구스티누스의 우정 개념,” 『가톨릭 신학과 사상』60(2007), 206~235.

80) 김경은, “영적 우정: 우정과 환대가 조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며,” 『신학과 실천』73(2021), 233~254.

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요청한다. 이 부분에서, 아우구스티누스는 환대를 주께서 주신 계명으로 여겨 제자도에 포함시켰으며 그것을 실천했는가 여부가 심판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준엄한 선언으로 받아들인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복음서들을 인용하면서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 준” 모든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한다. 반대의 경우, 즉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사실 또한 경고한다.⁸¹⁾ 이것은 환대가 도덕적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심판의 준엄한 기준임을 말해준다.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인간이 하는 일은 어린아이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주께서 이것을 제자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셨다는 점이 중요하다.”⁸²⁾ 이것은 “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 같은 존재로 환대하라는 관점(the gift of the other)과 연관된다. 그리스도는 드러나지 않는 주인(hidden host)이자 집 없는 손님(homeless guest)”이기 때문이다.⁸³⁾

이 부분에서, 환대를 ‘받아들이기’(making room)로 읽으면서 기독교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폴(Christine D. Pohl)의 관점을 참고하면 아우구스티누스를 더욱 풍성하게 읽을 수 있을 듯싶다.⁸⁴⁾ 폴은 환대의 역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아우구스티누스의 환대에 대한 관심을 놓치지

81) *De civitate Dei*, XX.5.5.

82) John F. Harvey, *Moral theology of the confessions of Saint Augustine*, 문시영 역, 『고백록, 윤리를 말하다』(성남: 북코리아, 2011), 89.

83) Andrew Shepherd, *The Gift of The Other: Levinas, Derrida, and a Theology of Hospitality* (Cambridge, UK: James Clarke & Co., 2014), 146~149.

84) Christine D. Pohl,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 1999), Preface, x.

않는다. 그리고 환대에 관한 논의에서 인문학자들이 주목을 받고 있지만, 기독교적으로 타당한 것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레비나스(Emmanuel Levinas)와 데리다(Jacques Derrida)의 그것을 차용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제자도에 근거한 환대에 주목할 필요를 말해주는 듯싶다. 인문학자들의 문제제기를 통해 기독교의 자성을 위한 계기로 삼자는 취지로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러셀(Letty M. Russell)은 교회의 본질이 ‘환대’라고 말한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⁸⁵⁾ 환대의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요청이다. 러셀이 공정한 환대(Just Hospitality)라는 표현이 사용하는 이유는 환대의 근거가 하나님의 환영(God's Welcome)에 있음을 말하려는 취지일 듯싶다.

이와 관련하여,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환대가 제자도에 근거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는 세족식을 은혜의 성례전적 표지로 인식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행위가 마치 발을 씻기는 것처럼 서로를 환대하는 행위가 된다고 생각했다.⁸⁶⁾ 제자도에 기초하여 “세상을 향하여 펼쳐야 할 복음적 환대(gospel hospitality)”를 말해준 것으로 읽을 수 있겠다.⁸⁷⁾

이러한 특징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설교문헌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대적(hospitable)이어야 하며 낯선 자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권한 부분에서도 확인된다.⁸⁸⁾ 여기에는 히포의 정황도 반영된다. 북아프리카를 피난처로 삼은 난민들이 넘쳐나고 있었고 많은 여행객

85) Letty M. Russell, ed. by J Shannon Clarkson and Kate M. Ott,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Louisville, K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19.

86)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문장은 Amy G. Oden, ed., *And you welcomed me* And you, 165에서 재인용했다.

87) Amy G. Oden, *God's Welcome: Hospitality for a Gospel-hungry World*, 7.

88) 아우구스티누스의 이 문장은 Jonathan D. Ryan, *Love does not seek its own: Augustine, Economic Division, and the Foramtion of a Common Life*, 142에서 재인용했다.

이 오가는 항구도시 히포의 교구관사에서 실천한 환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집트 사막의 수도원과 달리 고립된 금욕공동체가 아니라 독서와 연구, 학식있는 토론과 대화가 이어지는 곳으로서, 방문자들을 기꺼이 환대하는 공동체였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방문자들을 만나 대화했고 펠라기우스(Pelagius)도 방문자에 포함되어 있었다.⁸⁹⁾

이러한 뜻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환대는 카리타스의 다른 이름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고전13:5)’이며, 자아에 대한 사랑에서 타자를 향한 사랑(neighbourly love)으로의 전환으로서, 타자(the other)에 대한 심층적인 위탁이다.⁹⁰⁾ 혹은 사적인 자기이익의 추구로부터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의 전환이다.⁹¹⁾ 환대는 복음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도에 속한다는 인식이⁹²⁾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확인되는 셈이다. 아우구스티누스의 표현대로 하자면, 환대의 사회적 영성이 기초하는 근거는 ‘카리타스-사회적 사랑’의 제자됨이다.

3. 의의와 과제: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의 모색

이제까지의 논의를 통해 확인한 것은 아렌트의 비판과 달리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세계성을 부추긴 인물이 아니라 ‘사회적 사랑’을 통하여 카리타스의 사회적 지평에 관심해야 함을 일깨워 주었다는 사실이다. 사회적 영성에 관심한 것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진 사회적 영성을 말했다는 점 또한 중요하다.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사회적 영성이란 제

89) Peter Brown, 『아우구스티누스』, 284.

90) Katie Barclay, *Caritas: Neighbourly Love & the Early Modern Self*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172.

91) Jonathan D. Ryan, *Love does not seek its own: Augustine, Economic Division, and the Foramtion of a Common Life*, 227.

92) Caleb Camp, *The Hospitality of God: Discovering and Living Kingdom Hospitality* (Bloomington, IN: Westbow Press, 2017), 8.

자됨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모색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한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아우구스티누스 당시에도 그랬고, 또한 지금도 여전히 카리타스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사랑에 무관심하면서도 잘되는 영성에 집착하는 현실을 극복할 방법론 내지는 콘텐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논의가 지닌 한계이자 아쉬움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제자훈련’에 적극적인 한국기독교가 관심할 과제가 있다. 한국기독교의 제자훈련에 사회적 영성을 향한 관심이 반영되고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강남스타일의 교회와 레지던스의 삶을 추구하는 잘되는 영성에 집착하여 사회적 영성에 무관심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공적 책임과 소통, 그리고 공감과 환대의 사회적 영성에 관심할 필요를 확인해 준다. 말하자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창의적 계승이라는 의미에서, 한국기독교는 사회적 사랑에 기초한 사회적 영성을 복원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을 제자도의 지평에서 읽어내려는 데에는 공공성과 타자성에 적극 관심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잘되는 영성에 집착함으로써 사회적 영성에 소홀했던 한국기독교로 하여금 제자됨의 의의와 가치를 재발견하게 함으로써 윤리적 성숙을 추구하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영성은 제자됨의 윤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제자도를 내적 성찰과 성숙에 제한시켜서는 안 된다.

나아가, 사회적 영성을 제자됨의 관점에서 모색한다는 것 자체로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감과 환대는 레비나스와 데리다 등의 현대인문학자들에게 추동되어 기독교의 관점을 고찰하게 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본질적

으로는 제자도라는 기독교적 정체성을 지닌 논의로 확장되어야 한다. 현대 일반(hospitality in general)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제자도에 근거한 복음적 환대(gospel hospitality)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이유이다.⁹³⁾ 공적 책임과 소통, 그리고 공감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사회적 영성이 제자됨의 과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함으로 물론이고, 기독교 고유의 자원을 사회적 영성으로 펼쳐내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III. 나오는 말

아렌트의 문제제기를 단초로 삼아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관심한 이 글의 기본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공적 책임과 소통, 그리고 공감과 환대의 결여를 지탄받는 상황에서, 한국기독교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 아렌트의 비판은 잘되는 영성에 휘둘리는 한국기독교로 하여금 사회적 영성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중요한 계기일 수 있다. 다만, 아렌트가 공적 세계에 대한 책임 등에 대한 관심을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 찾지 못한 것은 오해 내지는 간과의 결과였다.

이 글을 통해 확인한 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사회적 영성이 담겨 있으며 그 바탕에 제자됨의 윤리가 있다는 사실이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제시한 카리타스 제자도는 사사로운 사랑을 넘어서 사회적 사랑을 지향한다. 그리고 사회적 영성은 제자됨의 윤리에서 요청되는 필수과제로서, 현대적 의미의 공공성과 타자성의 구현을 요청한다. 공공성으로서의 카리타스는 공적 책임과 소통의 실천으로, 타자성으로서의 카리타스는 공감과 환대의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사회적 사랑의 현대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93) Amy G. Oden, *God's Welcome: Hospitality for a Gospel-hungry World*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2008), 7.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국기독교는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모색해야 할 과제를 지니고 있다. 사회적 영성이 기독교에 낯선 그 무엇이 아닌 본질적 과제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제자도, 제자 윤리, 그리고 제자훈련에 대한 적극적 관심은 한국기독교의 중요한 자산일 수 있다. 이러한 관심들을 내적 성숙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타자성으로 확장하고 펼쳐냄으로써 시민사회의 제자윤리를 지향해야 한다.

참고문헌

라틴원문은 아우구스티누스 아키브에서 참고하였다.

http://www.augustinus.it/latino/disciplina_cristiana/index.htm 2022.7.28.
접속

De civitate Dei. 번역본: 성염 역주. 『신국론』. 왜관: 분도출판사, 2004 참고.

Confessiones, 번역본: 선한용. 『고백록』.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19 참고.

In Epistolam Ioannis ad Parthos Tractatus. 번역본: 최익철 역, 『요한서간 강해』.
왜관: 분도출판사, 2011 참고.

De Genesi ad Litteram. 해당 문장의 번역은 박승찬.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삶의 길을 묻다』. 서울: 가톨릭출판사, 2017 참고.

김경은. “영적 우정: 우정과 환대가 조화로운 공동체를 지향하며.” 『신학과 실천』 73(2021), 233~254.

김분선. “연민(compassion)은 윤리적 고려의 대상인가?: 공감, 연민, 과잉 공감의 문제화.” 『현대유럽철학연구』 64(2022), 287~318.

김진혁. “은혜와 정의: 득의론 관점에서 본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신학.” 『조직신학논총』 56(2019), 53~99.

김진호 외. 『사회적 영성』. 서울: 현암사, 2014.

남성현.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나타난 세속국가 허물기와 국가치료의 비전.” 『세계역사와 문화연구』 47(2018), 1~38.

문시영. “잘되는 영성에서 사회적 영성으로: 공공신학적 조망.” 『선교와 신학』 57(2022), 37~66.

_____. “아우구스티누스와 영성: 탐욕이 미덕인 시대에 다시 읽기.” 『신학과 교회』 25(2021), 87~114.

변종찬. “아우구스티누스의 우정 개념.” 『가톨릭 신학과 사상』 60(2007), 206~235.

선한용.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나타난 두 도성에 대한 문제 연구.” 『신학과 세계』 12(1986), 169~186.

송창현. “사회적 영성으로의 초대.” 『가톨릭평론』 1(2016), 215~222

양명수.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정치의 의미와 한계: 『신국론』 19권을 중심으로.” 『한

국기독교신학논총」62(2009), 133~157.

우병훈.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나타난 사랑의 갈등.” 『한국개혁신학』 70(2021), 168~217.

정기문. “로마는 어떻게 제국이 되었는가: 로마인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29(2008), 296~324.

채승희. “5세기초 북아프리카 교회의 대 정치적 성격: 칼라마 시의 폭동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반응을 중심으로.” 『장신논단』 44-4(2012), 139~164.

Ahn, Ilsup. *The Church in The Public: A politics of engagement for a cruel and Indifferent age*. Fortress Press: Minneapolis, MN: 2022.

Arendt, Hannah. ed. by Joanna Vecchiarelli Scott, Judith Chelius Stark. *Love and Saint Augustine*. 서유경 역. 『사랑 개념과 성 아우구스티누스』. 서울: 펄로소픽, 2022.

Barclay, Katie. *Caritas: Neighbourly Love & the Early Modern Self*.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Brown, Peter. *Augustine of Hippo*. 정기문 역. 『아우구스티누스』.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Camp, Caleb. *The Hospitality of God: Discovering and Living Kingdom Hospitality*. Bloomington, IN: Westbow Press, 2017.

Cochran, Elizabeth A.. *Protestant Virtue and Stoic Ethics*. New York, NY: T&T Clark, 2018.

Deane, Herbert A.. *The Political and Social Ideas of St. Augustine*, Tacoma, WA: Anglico Press, 2013.

Fitzgerald, Allan, ed.. *Augustine through the ages: an encyclopedia*.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 1999.

Hammer, Dean. *Roman Political Thought: From Cicero to Augustin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8.

Hauerwas, Stanley. *After Christendom?*. Nashville, TN: Abingdon Press, 1991.

_____. *The Peaceable Kingdom: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홍종락 역. 『평화의 나라』. 서울: 비아토르, 2021.

Heichelheim, Fritz M.. *A History of Roman People*. 김덕수 역. 『하이켈하임 로마사』. 서울: 현대지성, 2022.

- Hollingworth, Miles. *The Pilgrim City: St. Augustine of Hippo and his Innovation in Political Thought*. New York, NY: T&T Clark, 2010.
- Jesuit Centre for Faith and Justice, eds. *Windows on Social Spirituality*. Dublin: Ireland, 2003.
- Levering, Matthew. *The Theology of Augustine: An Introductory Guide to His Most Important Works*, Grand Rapids, MI: Baker Academic, 2013.
- Marshall, Michael. *Flame in the Mind*. 정다운 역. 『순례를 떠나다』. 서울: 비아, 2018.
- Mathews, Charles. *Theology of Public Lif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 Oden, Amy G., ed. *And you welcomed me*. Nashville, TN: Abingdon Press, 2001.
- _____. *God's Welcome: Hospitality for a Gospel-hungry World*. Cleveland, OH: The Pilgrim Press, 2008.
- Pohl, Christine D.. *Making Room: Recovering Hospitality as a Christian Tradition*. Grand Rapids, MI: Wm Eerdmans Publishing, 1999.
- Russell, Letty M., ed. by Clarkson, J. Shannon and Ott, Kate M., *Just Hospitality: God's Welcome in a World of Difference*. Louisville, KN: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9.
- Ryan, Alan, *On Augustine: The Two Cities*. New York, NY: Liveright Publishing, 2016.
- Ryan, Jonathan D., *Love does not seek its own: Augustine, Economic Division, and the Foramtion of a Common Life*. New York, NY: T&T Clark, 2021.
- Shepherd, Andrew. *The Gift of The Other: Levinas, Derrida, and a Theology of Hospitality*. Cambridge, UK: James Clarke & Co., 2014.
- Smith, James K, A., *Awaiting the King*. 박세혁 역. 『왕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 공공신학의 재형성』. 서울: IVP, 2019.
- Stackhouse, Max,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ics*. Lanham, M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 Trapè, Agostino. *Agostino: l'uomo, il pastore, il mistico*. 변종찬 역. 『아우구스 타누스: 인간, 목자, 신비가』. 의왕: 도서출판 벽난로, 2010.
- Uhalde, Kevin. *Expectations of Justice in the Age of Augustine*.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2007.

Wetzel, James, ed., *Augustine's City of God: A Critical Guid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2.

Williams, Rowan, *On Augustine*. 김지호역. 『다시 읽는 아우구스티누스』. 고양: 도서출판 100, 2021.

논문투고일: 2023년 02월 07일

심사개시일: 2023년 03월 16일

게재확정일: 2023년 03월 29일

• 국 문 초 록 •

공적 책임과 소통, 그리고 공감과 환대의 결여를 지탄받는 상황에서, 한국기독교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가? 『신국론』은 이 문제를 풀어낼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아렌트가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독교의 ‘무세계성’을 부추겨 공적 책임을 비롯한 세계사랑에 무관심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지만, 그것은 『신국론』에 담긴 제자됨의 윤리와 사회적 사랑(*amor socialis*)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카리타스에는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는 제자됨의 윤리가 담겨 있으며, 사사로운 사랑(*amor privatus*)을 넘어서 사회적 사랑을 지향한다. 공공성으로서의 카리타스는 공적 책임과 소통의 실천으로, 타자성으로서의 카리타스는 공감과 환대의 실천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와의 현대적 대화를 통하여, 한국기독교는 제자도에 근거한 사회적 영성을 모색해야 한다. 제자도, 제자윤리, 그리고 제자훈련에 적극적 관심을 지닌 한국기독교는 내적 성숙과 훈련에만 관심하기를 넘어서, 제자도를 공공성과 타자성으로 펼쳐내야 한다. 사회적 사랑을 요청하는 사회적 영성은 기독교에 낯선 그 무엇이 아니라, 제자됨의 윤리에 필수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국기독교는 사회적 영성에 대한 관심을 통해 시민사회의 제자윤리를 구현하는 단계로 성숙해야 한다.

주제어: 제자도, 제자됨, 사회적 영성, 공적 책임, 소통, 공감, 환대
